

한국인의 100세 장수시대 인식과 영향요인

정형선*, 송양민**†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가천의과학대학교 보건행정학과**

<Abstract>

Korean People's Perception of Longevity and its Determinants

Hyoung-Sun Jeong*, Yang-Min Song**†

*Department of Health Administration, Yonsei University,**

*Department of Health Administration, Gachon University***

This study aims at surveying how Koreans look upon and prepare for the age of longevity(“age of 100 years”) drawing near at hand, analyzing factors affecting such a perception and behavior. To this end, a telephone survey was launched for 1200 persons sampled to evenly comprise the young, middle-aged, and elderly groups. Our findings indicate that more Koreans looked upon the upcoming “age of 100 years” as a ‘disaster’ rather than a ‘blessing.’ The sense of combined uneasiness over the aged life being further elongated while they are unprepared for it, anxiety over maintaining health and so forth came into play. However, the better a person is prepared by way of health management, savings for retirement, preparation for leisure

* 접수 : 2011년 10월 28일, 최종수정 : 2011년 12월 7일, 게재확정 : 2011년 12월 21일

† 교신저자 : 송양민, 가천의과학대학교 보건행정학과, Tel : 032-820-4607, Fax : 032-820-4029,

E-mail : ymsong@gachon.ac.kr

* 이 논문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지원을 얻어 작성되었습니다.

activities and employment for the later life, the more positively he or she looked upon the “age of 100 years”. An analysis by group indicates that women rather than men, the elderly rather than the young, the less educated rather than the highly educated, the low-income bracket rather than the high-income bracket looked upon the “age of 100 years” more negatively. Under such circumstances, it is suggested that the nation’s social system tailored to a life expectancy of 80 years should be readjusted, tailored to a ‘longevity paradigm’ and that to this end social systems should be reoriented toward the direction where ‘healthy aging’ and ‘active aging’ are fully supported

Key Words : the age of longevity, centenarian, modal length of life, healthy aging, active aging, public-private partnership

I. 서 론

의학기술의 발전과 영양상태 개선, 건강관리 개념의 확산에 힘입어 한국인의 수명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의 2009년 생명표(2010)에 의하면, 1988년 처음으로 70세를 넘어섰던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매년 4~5개월씩 늘어나, 불과 20년 만인 2008년 80세(남자 76.5세, 여자 83.3세)에 도달했다. 그러나 평균수명의 증가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최빈 사망연령(modal length of life)’의 증가이다. 이는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사망하는 나이를 가리킨다. 나라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최빈 사망연령은 평균수명보다 대체로 4~5살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세계적인 장수국가인 일본의 경우, 여성의 최빈 사망연령이 이미 2000년부터 90세를 넘어섰으며, 이후에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인의 최빈 사망연령 역시 1983년 71세에서 2008년 85세까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남자보다 훨씬 오래 사는 한국 여성들의 최빈 사망 연령은 더욱 빨리 늘어나, 2020년까지 90세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전홍택 등, 2011). 인구통계학자 박유성(2011)은 현재 살아 있는 1954년생 남자 10명 중 4명(39.6%)이 98세까지 살아남고, 동갑 여성은 10명 중 5명(46.2%)이 98세까지 살 것으로 예상했다. 새로운 의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암(癌) 같은 난치병 치료가 점차 가능해지고, 노화방지 물질과 인공장기 등이 개발되면서 상당한 수준의 생명연장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진단에

서다. 이런 분석에 근거하여 한국인의 최빈 사망연령은 금세기에 100세 근처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전홍택 등, 2011).

고령자의 증가는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고령자의 증가에 따라 노인의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강성미 등, 2009),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비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윤석명과 신화연, 2011). 또 노동력 감소와 소비 위축으로 잠재경제성장률이 2050년쯤엔 1%대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최경수 등, 2003). 이 때문에 우리 사회에는 요즘 인구고령화와 나이 듦(aging)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개인들은 '노인이 되는 것'과 '노인으로 불리는 것'을 꺼리고, 정부는 고령인구의 급증으로 국가의 활력과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는 것을 우려한다. 이런 현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인구고령화는 유럽과 일본 등 많은 선진국들이 우리보다 앞서 겪고 있는 인구학적 변천 현상이다(Rice와 Fineman, 2004). 문제의 소지가 없지는 않지만 대책을 꾸준히 마련하여 해결책을 찾아가야 한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볼 때 장수는 축복받을 일이며, 사회적으로 볼 때도 '건강하고 활동적인 고령자'들이 많이 늘어난다면 사회보장 지출부담이 상당부분 억제될 수 있을 것이다. WHO(세계보건기구)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가 수년 전부터 active aging(활동적 고령화), healthy aging(건강한 고령화)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정형선 등, 2007). 지금과 같은 수명증가 추세, 특히 최빈 사망연령의 증가 속도를 고려할 때, 100세 장수 시대 즉, '누구나 노력 여하에 따라 100세 장수를 기대할 수 있는 시대'는 머지않은 미래에 다가올 것이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100세 장수시대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과 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본 연구는 장수시대의 도래를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정책적 판단의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장수와 100세의 관계

장수(longevity)는 예로부터 건강 부귀 등과 함께 5복(福)의 하나로 꼽혀왔다. 이런 풍습은 유교 문화에서 유래한다. 유교 경학서인 서경(書經)에서는, 오래 장수함을 의미하는 수(壽)는 부(富), 강령(康寧), 유후덕(攸好德), 고종명(考終命)과 함께 하늘이 소

수의 인간에게 내리는 복(福)으로 지칭된다. 이런 전통 때문에 그간 우리나라에는 ‘오래 사는 것은 좋은 것’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으며, 장수노인들은 지역주민들부터 존경과 하례를 받았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으로 노인인구 부양 문제가 부각되면서 장수에 대한 인식은 조금씩 변화해 가고 있다.

몇 살까지 사는 것을 장수(長壽)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합의된 의견은 없다. 우리나라에선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80대 중반을 넘으면 장수했다는 말을 들었다(박상철, 2002). 하지만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이미 80세(여성은 83.3세)를 넘어선 현 시점에서는 90세는 넘어야 장수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장수의 상징적인 숫자는 ‘100세’라는 인식이 우세하다. WHO가 주기적으로 세계 주요 국가들의 백세인(centenarian) 통계를 집계해 발표하고, 백세인의 삶을 관찰하는 것이 그런 예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백세 장수인은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있다. 평균수명이 40세 전후에 그쳤던 고려와 조선 시대의 경우, 80세에 도달한 노인에게 대해 임금이 명아주로 만든 지팡이(청려장, 靑藜杖)를 선물하는 전통이 있었다(박종한, 2007). 지금은 나이가 100세로 높아졌지만, 이 같은 전통은 대통령의 하사품의 형태로 남아 있다.

통계청의 고령자집계 결과(2011)에 따르면, 우리나라 100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2010년 11월 기준으로 1천836명(남자 256명, 여자 1천580명)을 기록, 인구 10만 명당 3.8명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백세인 숫자는 선진국들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2005년 조사(961명)에 비해서는 91.1%가 늘어난 것으로,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할 수 있다.

2. 100세 장수인 및 인식도 관련 선행연구

100세 장수는 흔하지 않다. 또한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에 비해 100세 장수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장수인에 대한 연구는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발표된 논문 수도 많은 편이 아니다. 기존 연구들은 100세 장수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사회·환경 요인을 분석하거나 장수인의 생활습관과 식생활을 분석하는 것들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

김중인(2002)은 백살 이상 장수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통계분석을 통해 담배소비가 많고, 대기오염이 높은 지역은 대체로 장수비율이 낮으며, 수질오염이 적고, 콩 생산량이 많은 지역에서 백세인이 많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상철(2002)은 2001년과 2002년 백세인을 직접 면담 조사하여, 우리나라 백세인의 생활과 습관 및 환경이

다른 나라의 백세인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국내 장수지역 간에도 그 차이가 현저함을 보여주었다.

서울대 체력과학연구소와 조선일보가 공동기획한 100세 장수인에 대한 공동조사(서울대체력과학연구소·조선일보, 2003)는 우리나라 남성 장수자들이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지역에서, 여성 장수자는 제주·전남지역을 비롯한 서남지역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밝혀냈다. 박상철(2005)은 우리나라에서 장수도가 가장 높은 지역인 전남 구례·곡성·담양군, 전북 순창군 등 호남 장수지역 벨트를 심층 조사한 바, 장수인의 91.2%가 하루세끼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있으며, 쌀밥 이외에 과일과 콩, 버섯류, 채소류를 즐겨 섭취하는 사실 등을 확인했다.

박삼옥 등(2007)은 85세 이상 인구가 많은 장수지역과 비(非)장수지역을 비교분석하여, 장수마을일수록 마을주민 간의 공동체적 유대감이 강하며, 90세 이상 장수인들의 경우 흡연과 음주를 절제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건강습관을 가졌음을 보여주었다.

장수인에 관한 대표적인 해외 연구로는 미국에서 이루어진 조지아 백세인 연구와 뉴잉글랜드 백세인 연구, 스웨덴에서 이루어진 스웨덴 백세인 연구, 일본에서 이루어진 오키나와 백세인 연구를 들 수 있다. 조지아 연구(Adkins, Martin & Poon, 1996)는 연령증가에 따른 인지능력의 저하가 장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인지능력의 저하에 인간의 성격과 스트레스 등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뉴잉글랜드 연구(Perls, 1997)에서는 백세 장수인들은 90세에 도달할 때까지 독립적으로 생활할 만큼 기능상태가 매우 좋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오키나와 백세인 연구에서는 올바른 생활습관과 건강관리가 장수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장수에 영향을 주는 사회·환경·생물학·유전학적 요인을 탐구하는 장수인 연구와는 달리, 100세 장수시대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조사는 거의 없다. 100세 장수인(centenarians)이 가장 많은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과 유럽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해외에서 이루어진 조사로는 프랑스 AXA-CSA가 2011년 18세 이상 성인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프랑스인의 장수인식 조사’ 정도가 있다(AXA-CSA, 2011). 이 조사에서 프랑스인의 78%가 장수를 ‘좋은 것’으로 응답하고 17%만이 ‘안 좋은 것’으로 대답하였으며, 장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는 나이가 많을수록 더 강했다. 또 85%가 인간의 장수 현상이 가족 응집력을 강하게 만들고, 세대 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국에서 실시된 조사로는, 보건사회연구원이 본 연구의 착수시점보다 한 달 늦은 6월 하순, 30~69세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생 100세 시대 대응 국민인

식 조사'가 유일하다. 이 조사에서 대상자의 28.7%만이 90세 또는 100세 이상 사는 것을 축복이라고 응답했고, 43.3%는 '축복이 아니다', 28.0%는 '그저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동 조사는 비교적 단순한 내용을 간단히 전화로 물어본 것이었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100세 장수시대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본격적으로 확인하고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했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조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백세시대 연구의 일환으로 2011년 5월 12일부터 20일까지 제주도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거주하는 12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표본은 2005년 인구센서스 인구구조를 기반으로 지역별·연령별·성별로 할당된 뒤, 전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추출했다. 조사대상자들의 거주 지역 분포를 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602명(50.2%), 영남권 619명(26.6%), 호남권 124명(10.3%), 충청권 116명(9.7%), 강원 39명(3.3%) 등이다. 추가적으로 '노후건강 준비', '노후일자리 준비', '노후생활 준비', '여가시간 활용 준비' 등 주제별로 각각 300 인씩을 추출하여 심층 조사를 실시했다.

2. 조사방법

본 조사는 전화 서베이방식, 특히 훈련받은 조사원이 조사대상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질문서를 읽어준 뒤, 대상자들이 이에 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설문항목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자 패널의 의견을 취합하여 작성되었다. 설문 구성은 100세 장수시대에 대한 국민들의 전반적 인식을 알아보는 부분과 개개인의 준비 상태를 파악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자료의 분석은 먼저 기술통계량을 통해 분석변수의 특성을 파악하고 100세 장수시대에 대한 인식의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이어 다변량 회귀분석을 통해 영향요인과 종속변수 사이의 편상관(片相關) 관계를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했다. 100세 장수를 축복으로 여기는 집단과 축복으로 여기지 않는 집단만을 비교 대상으로 함에 따라 다변량 분석에서 실제로 사용된 표본 수는 1,200명에서 873명으로 줄어들었다.

1) 사회·인구학적 요인

사회·인구학적 요인은 성별, 거주지역, 연령, 교육수준, 직업, 소득수준, 총자산 등으

로 구성하였다. 연령은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였으나, 자료 수집 후 세대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청년층(39세 이하), 중·장년층(40~64), 고령층(65세 이상)으로 재분류를 했다. 소득수준도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였으나, 자료 수집 후 소득계층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저소득층(200만원 미만), 중간소득층(200~500만원), 고소득층(500만 원 이상)으로 재분류를 했다.

2) 장수시대 준비 변인

100세 장수 시대에 대한 준비 상태는 건강 준비, 노후생활비 준비, 노후 일자리 준비, 여가활동 준비 항목의 4가지로 나누어 질문을 하였다. 각각의 구성 내용은 <표 1>과 같다. 이와 같은 4개 측정항목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고령화(aging)와 고령자 삶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고려하였으며, 또 20여명의 각계 전문가 패널의 토의를 거쳤다. 통계청 사회조사(2009)에서 고령자들이 노년기에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경제적인 문제(42.6%)'와 '건강 문제(37.2%)'이었던 점도 고려되었다.

답변은 응답자들이 '많이 하고 있다', '어느 정도 하고 있다', '보통이다', '별로 하고 있지 않다', '전혀 하고 있지 않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답변은 Likert 5점 척도 방식으로 재분류하여 평균점을 낸 다음, 이를 '노후에 대한 준비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로 사용하였다. 노후준비는 '의식'의 단계와 '행동(action)'의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행동 부분에 중점을 두어 조사를 실시했다.

표 1. 장수시대에 대비한 개인준비 변인과 내용

변 인	내 용
건강 준비	육체적 운동, 정신적 건강상태
노후 생활비 준비	개인연금 가입, 노후생활비 저축, 은퇴준비 투자
노후 일자리 준비	직업훈련, 전직교육
여가활용 준비	자원봉사, 취미·문화 활동

IV. 연구결과 및 분석

1. 조사대상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징은 <표 2>와 같다. 남자가 48.9%, 여자가 51.1%를 차지하고 있으며, 거주 지역은 대도시가 47.9%,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이 52.1%로 각각 나타났다.

연령대를 보면, 청년층(20대와 30대)이 44.8%, 중장년층(40~64세)이 40.8%를 각각 차지하고 있으며, 고령층(65세 이상)은 14.3%이었다. 교육 수준은 중졸 이하가 19.0%, 고졸이 26.4%, 대학 재학 이상이 54.6%이었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징

	구 분	빈도	분포
거주지역	대도시	575	47.9%
	중소도시	443	36.9%
	읍면지역	182	15.2%
성별	남자	587	48.9%
	여자	613	51.1%
연령	청년층(~39세)	538	44.8%
	중장년층(40~64세)	490	40.8%
	고령층(65세~)	172	14.3%
교육수준	중졸이하	228	19.0%
	고졸	317	26.4%
	대재이상	655	54.6%
직업	사무직 및 전문직	273	22.8%
	자영업(농업·수산업·축산업 포함)	254	21.2%
	판매직 및 생산·기술·노무직	156	13.0%
	주부	254	21.2%
	학생	135	11.3%
	무직	125	10.4%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58	22.7%
	200~500만원	568	50.0%
	500만원 이상	309	27.2%

※조사는 총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각 항목별로 모름, 무응답의 경우는 빈도에서 제외함.

자영업(농업 및 수산업 포함)이 21.2%, 판매직 및 생산·기술·노무직이 13.0%, 사무직 및 전문직이 22.8%, 주부가 21.2%, 학생이 11.3%를 보였으며, 직업이 없는 무직(無職)이 10.4%이었다.

조사대상자들의 경제력을 살펴보면, 월 소득의 경우 200만원 미만이 22.7%, 200~500만원이 50.0%, 500만원 이상이 15.8%로 나타났다. 재산 규모(부동산, 저축, 부채 포함)는 1억 미만이 30.0%, 1억~3억 미만이 35.9%, 3억~5억 미만이 15.7%, 5억 이상이 18.4%로 나타났다.

2. 장수시대에 대한 인식과 준비정도

100세 장수를 축복으로 생각해온 전통적 관념과는 달리, 이번 조사에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대답이 더 많이 나왔다. 100세 시대가 축복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조사

대상자의 33.2%만이 ‘그렇다(축복)’고 응답했으며, 39.6%는 ‘그렇지 않다(재앙)’고 응답했다. ‘보통’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27.3%였다<표3 참조>.

또 100세 장수시대를 대비함에 있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을 묻는 질문(2개 복수응답 가능)에 대해 건강(88.8%)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노후생활비(76.8%), 노후 일자리(17.9%), 여유시간의 활용(1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4 참조>.

표 3. 100세 장수시대에 대한 인식 분포

구 분	100세까지 장수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정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빈도	140	258	327	355	120
(비중)	(11.7%)	(21.5%)	(27.3%)	(29.6%)	(10.0%)

표 4. 100세 장수시대의 걱정거리 순서

문 항	빈도	분포
노후 건강	1,066	88.8%
노후 생활비	923	76.8%
노후 일자리	215	17.9%
여가시간의 활용	166	13.8%
기타	9	0.8%

*중복응답을 허용하였음.

100세 장수시대에 대비한 개인들의 준비 상태를 물어본 질문에서는 전체 평균점이 2.62(보통=3점)로 나타나, 노후 준비가 대체로 부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 100세 장수시대에 대비한 국가의 대비 상태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수인 62.8%가 ‘잘 안 되어 있다’고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고, 7.1%만이 ‘잘 되어 있다’는 대답을 하였다<표 5 참조>.

표 5. 100세 시대의 국가적 대비 정도 인식

문 항	빈도	분포
잘되어 있는 편	85	7.1%
보통	357	29.7%
잘 안 된 편	753	62.8%
모름·무응답	5	0.4%
소계	1,200	100%

노후 건강 준비와 관련한 심층 조사에서는 백세 시대의 건강관리 책임의 주체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8.9%에 달했다. 노후생활비 준비, 노후 일자리 준비, 여가시간활용 준비에 대한 책임 주체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표6 참조>.

이 같은 응답 결과는 100세 장수시대에 대한 준비와 관련하여, 개인과 사회, 국가 3자(者)가 서로 상당한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국인의 장수시대 인식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표 6. 100세 시대 준비 책임주체에 대한 인식

문 항		빈도	분포
건강관리 준비	본인 및 가족의 책임	123	41.1%
	국가 지원 필요	176	58.9%
	소계	299	100%
노후생활비 준비	본인 및 가족의 책임	135	45.3%
	국가 지원 필요	163	54.7%
	소계	298	100%
노후일자리 준비	본인 및 가족의 책임	94	31.4%
	국가 지원 필요	205	68.6%
	소계	299	100%
여가시간 활용준비	본인 및 가족의 책임	118	39.7%
	국가 지원 필요	179	60.3%
	소계	297	100%

※ 결측값은 제외함.

3. 장수시대에 대한 집단 간 인식 차이

설문조사에서 100세 장수시대를 얼마만큼 축복으로 여기는지에 대한 응답을 Likert 5점 척도로 받은 다음, 분석의 편의를 위해 ‘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를 긍정적인 답변으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를 부정적인 답변으로 재구성하였다.

먼저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분포를 보면,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의 종류, 소득수준에 있어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7 참조>.

여성들은 남성보다 100세 장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여자의 노후생활이 남자의 노후생활보다 훨씬 활기차다는 일반적인 상식과 다른 흥

미로운 결과이다. 또 고령층에서 100세 장수시대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다.

표 7.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100세 장수시대에 대한 인식

구 분	100세 장수시대에 대한 인식		계	χ^2
	부정적	긍정적		
(n=873)				
거주지역				
대도시	234 (55.2)	190 (44.8)	424 (100)	0.20
중소도시/읍면	241 (53.7)	208 (46.3)	449 (100)	
성별				
여자	282 (62.7)	168 (37.3)	450 (100)	25.52***
남자	193 (45.6)	230 (54.4)	423 (100)	
연령				
청장년층	367 (50.3)	363 (49.7)	760 (100)	30.74***
고령층	108 (75.5)	35 (24.5)	143 (100)	
교육수준				
고졸이하	281 (66.1)	144 (33.9)	425 (100)	45.76***
대제이상	194 (43.3)	254 (56.7)	448 (100)	
직업				
사무·전문직	72 (40.0)	108 (60.0)	180 (100)	51.88***
자영업	117 (58.8)	82 (41.2)	199 (100)	
판매·생산·기술·노무직	64 (53.8)	55 (46.2)	119 (100)	
주부	139 (72.4)	53 (27.6)	192 (100)	
학생	33 (37.5)	55 (62.5)	88 (100)	
무직	50 (53.2)	44 (46.8)	94 (100)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33 (66.5)	67 (33.5)	200 (100)	17.82***
200이상~500만원 미만	217 (54.1)	184 (45.9)	401 (100)	
500만원 이상	104 (46.2)	121 (53.8)	225 (100)	

*p<.05 **p<.01 ***p<.001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고졸이하)이 100세 장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자영업자나 판매·생산·기술직, 주부 등의 그룹이 사무·전문직에 비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에 있어서는 월 소득 200만원 미만인 저소득집단이 장수시대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력이 취약한 사람들이, 은퇴기간이 무려 40~50년에 달하는 100세 장수시대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100세 장수시대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이 의외로 부정적인 쪽으로 흐르고 있음은 앞에서 살펴보았고, 또한 그러한 인식이 인구집단별로 어떻게 다른지도 검토했다. 다음으로 이러한 인구집단이 분류 기준별로 중첩되어 있어서 생기는 착시 현상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한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를 제시한다<표8 참조>.

표 8. 100세 장수시대에 대한 인식을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긍정적=1)

(n=873)

구 분	B	Exp(B)	95.0% CI	
			L	H
거주지역				
대도시(기준)				
중소도시/읍면	0.258	1.294	0.958	1.749
성별				
여자(기준)				
남자	0.527**	1.694	1.197	2.397
연령				
청·장년층(기준)				
고령층	-1.167***	0.311	0.171	0.566
교육수준				
고졸이하(기준)				
대재이상	0.466*	1.594	1.101	2.306
직업				
사무·전문직(기준)				
자영업	-0.492*	0.612	0.379	0.987
판매·생산·기술·노무직	-0.245	0.783	0.456	1.342
주부	-0.731**	0.481	0.286	0.810
학생	0.243	1.275	0.692	2.347
무직	0.532	1.703	0.854	3.396
소득수준	0.027	1.027	0.815	1.296
장수를 위한 개인의 준비 정도	0.241*	1.272	1.053	1.538
국가의 준비 정도에 대한 인식	0.441***	1.555	1.285	1.881
Model Chi-Square		118,740***		
-2 Log Likelihood		995.432		

*p<.05 **p<.01 ***p<.001

단변량 분석(x^2)에서 집단 간에 유의하게 차이를 보였던 변수 중에서 ‘소득’ 변수는 다변량 분석에서 유의성이 사라졌다. 저소득층의 100세 장수시대 인식에 대한 유의한 관계는 결국 고령층, 고졸이하 층, 비사무직 등의 부정적 인식을 포함한 결과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고령층(65세 이상)이 청·장년층에 비해 100세 장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적었으며(0.3배), 여성이 남성보다, 고졸 이하가 대재 이상보다, 자영업 또는 주부가 사무직보다 덜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반면에, ‘노후에 대한 준비 정도’가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경향을 보였다. 노후 준비를 착실히 한 사람이 장수시대의 도래를 밝게 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평범한 결론이 100세 장수사회를 대비하는 비결임을 확인할 수 있다(塊屋太一, 2005). 또한, 100세 장수시대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일수록 장수시대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V.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우리나라 사람들은 100세 장수시대에 대해 ‘축복’이라는 인식(33.2%)보다는 ‘재앙’에 가깝다는 생각(39.6%)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일반인의 상식과는 다른 결과이다. 78%가 ‘장수를 좋은 것(longevity is a good thing)’으로 평가한 외국의 사례와도 (AXA-CSA, 2011) 상당히 다른 결과다.

둘째,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여성이 남성보다, 고령층이 청·장년보다, 자영업자나 판매·생산·기술직, 주부 등의 그룹이 사무·전문직에 비해 100세 시대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함이 드러났다. 또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장수시대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적 안정성이나 사회적·경제적 위치가 취약한 사람일수록 100세 장수시대에 대한 불안감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낌을 의미한다.

셋째, 장수시대에 대비하여 건강관리, 노후생활비, 여가활동 준비, 노후 일자리 준비 등 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또 국가의 준비가 잘 되어있다고 평가하는 사람일수록, 100세 장수시대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함이 확인됐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래 살기를 희망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인생 100세 시대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결과는 의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프랑스 경우 긍정적인 인식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은, 연금과 의료

보험 등 사회보장제도가 완벽하고, 법정휴가일이 세계최고 수준으로 보장되며, 젊은 시절부터 충실한 여가생활을 하는 경험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제도가 취약한데다, 많은 직장인들이 노후준비가 부실한 상태에서 정년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조기퇴직에 내몰려 노후생활이 심각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다는 사실이 오래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촉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후생활 기간이 길어지면 장수자 대부분이 재정적인 파탄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현역생활만큼의 건강 유지가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장수시대에 대비하여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100세 장수시대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 결과는 매우 시사적이다. 물론 그 준비는 돈(노후 소득 확보)만이 아니고, 건강관리와 여가생활, 노후 일거리 확보, 자원봉사 등 사회참여, 가족관계의 복원 등 여러 방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榑原英資, 2006).

100세 장수시대는 머지않아 우리 곁에 다가올 것이다. 그에 맞춰 국민들이 '행복한 장수(happy longevity)를 누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장수사회 인프라'를 착실히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국가·사회·개인적으로 '준비된 장수'는 축복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모두의 고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장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첫째, 사회시스템을 '건강한 고령화'와 '활기찬 노화'를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바뀌 나가야 한다. 본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듯이 건강 장수를 위한 개인의 노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사회의 지원 사이에 적절한 역할 분담(public-private partnership)과 협력이 요구된다(WHO, 2003). 건강검진을 개인의 영역에만 맡겨두지 않고 건강보험의 사업대상으로 확대해온 그 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이를 사후관리로 연결시키기 위한 공공의 노력을 배가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노후 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100세 시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초래한다는 점이 확인 된 바, 고령자 일자리 창출과 소일거리 지원책 그리고 은퇴소득 확보 지원책 등이 사회적 차원에서 강구되어야 한다. 은퇴생활기간이 40~50년 이상으로 길어지는 장수시대에선 은퇴자금 고갈에 따른 노인빈곤화를 예방하려면 개인들이 현역시절 충분한 자금을 축적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임금피크 제도를 확대하고 '최소정년제도' 도입을 검토하여, 현재 55~60세로 되어 있는 정년연령을 단계적으로 57~62세로 끌어올리는 등 정부와 기업들이 함께 풀어가지 않는 한 100세 시대의 불안감을 해소되기 힘들다.

본 연구는 머지않아 다가올 100세 장수시대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 수준과 대책을 점검하였다. 국내에서 이뤄진 본격적인 첫 조사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연구 표본수가 1200명에 그친 점, 대면조사와 비교할 때 전화조

사가 가지는 한계점 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국민들의 전반적인 인식에 대한 조사를 넘어서서, 보다 다양한 영향 요인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강성미, 정형선, 송양민, 이규식. 인구고령화를 고려한 공공의료비의 장래추계.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009; 15(2): 1-20.
- 김종인. 백살 이상 장수노인의 거주지역에 대한 사회환경요인. 한국노년학 2002; 21(3): 157-168.
- 박삼옥, 박상철, 최성재, 이정재, 한경혜, 이미숙 등. 한국의 장수인과 장수지역.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 박상철. 한국의 백세인.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 박상철. 노화혁명. 서울: 하서; 2010.
- 박유성. 100세 쇼크. 2011년 대한임상노인의학회 춘계학술대회 ‘행복한 노화, 가능한가?’ 심포지엄 발표; 2011.
- 박종한. 성공적인 노년을 위하여. 서울: 비봉출판사; 2007.
- 서울대 체력과학연구소·조선일보 공동기획. 장수의 비밀. 서울: 조선일보사; 2003.
- 윤석명, 신화연. 100세 시대 대비한 국민연금 재정전망과 정책과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 전홍택, 박명호, 윤석명, 송양민, 정형선, 방하남 등. 100세 시대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서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1.
- 정형선, 송양민, 이규식. 인구고령화와 의료비.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007; 13(1): 95-116.
- 최경수, 문형표, 신인석, 한진희.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1). 한국개발연구원. 2003.
- 통계청. 2009년 사회조사. 대전: 통계청; 2009.
- 통계청. 2009년 생명표. 대전: 통계청; 2010.
- 통계청. 2010년 고령자 통계. 대전: 통계청; 2010.
- 통계청. 100세 이상 고령자조사 집계 결과. 대전: 통계청; 2011.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이슈 & 포커스: 인생 100세 시대 대응 국민인식 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 Adkins G, Martin P, Poon LW. Personality traits and states as predictors of subjective well-being in centenarians, octogenarians, and sexagenarians. *Psychology and Aging* 1996; 11(3): 408-416.
- AXA-CSA, Proceedings of the global forum for longevity; 2011 Mar 28; Paris, France. Collège des Bernardins; 2011. Available from : URL: http://longevity.axa.com/en/etude_csa.php.
- OECD. Maintaining prosperity in an aging society. Paris: OECD, 1998.
- OECD. Reforms for an aging society. Paris: OECD, 2000.
- Perls TT. Centenarians prove the compression of morbidity hypothesis, but what about the rest of us who are genetically less fortunate. *Medical Hypothesis* 1997; 49: 405-407.
- Rice DP, Fineman N. Economic implications of increased longevity in the United States. *Annual Review of Public Health* 2004; 25: 457-473.
- Spillman SC, Lubitz J. The effect of longevity on spending for acute and long-term car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2000; 342: 1409-1415.
- WHO. Active aging: a policy framework. Geneva: WHO, 2002.
- WHO. WHO health report 2003: Shaping the future. Geneva: WHO, 2003.
- 塊屋太一. 團塊の世代 ‘黄金の十年’ が始まる. 東京: 文藝春秋, 2005.
- 榊原英資. 黄金の人生設計圖. 東京: 中央公論新社, 2006.